

국어를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리고 그 1등급을 안정화 시킨 후 백 99로 가게 된 방법

2. 1등급의 안정화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칼럼은 15년도부터 시작해 3~4를 전전하다가 18년도 수능에 1을 받고 19년도 수능에서 다시 1을 다시 받아내게된 그 이야기입니다. 하방을 다지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편은 만족하고 다니던 학교에서 무언가에 급혀 무휴학 반수를 하게되었던 그 과정을 적어볼까 합니다. 그때는 만년 백96에서 22년도 9월 만점(물로켓 시험지라 백99임)과 수능 백99라는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써볼까합니다. 그때는 상방을 다지는 공부법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20, 21때는 어지럼증 이슈로 거의 병원만 다닌 것 같고 2년이 날아간 것 같음.)

분명히 그 해 1등급을 받아내고 입시를 마무리하면 좋았겠지만 제 고질병인 수학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아(가4 임 추후 나형 백100 받고 가4=나1을 입증해냄 AB형, 가나형, 통합 다해봄) 또 무휴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 입시철을 풀면 끝이 없겠지만 국어라는 과목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에서 1로 올린 후 다시 1이 나오지 않고 등급이 떨어졌다면 그 과정은 그저 요행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음해 시험에서도 여전히 1컷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는 등급을 어떻게 유지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합니다.

그 당시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 다 맞춰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백 96~97정도만 받아내 1등급을 유지하면 만족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만족감에 머물러 정체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유지가 되긴 했다는거거든요... 기능했으니 문제가 없다 마인드였습니다.

이때는 18, 19라서 지금과는 메타가 달랐지만 그래도 시간관리나 학습 방법에 대해선 배워갈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 써보게 되었습니다. 22때 했던 공부가 좀 더 직접적으로 와 닿으실 것 같지만 여기서는 시간 관리를 강박적으로 하는법, 줄 건 주고 가져갈 건 무조건 가져가기(유연한 사고), 풀이 순서의 최적화, 수면부족같은 변수가 있어도 풀어내는 연습(표시의 일관화) 등을 다루어보겠습니다.

만점을 위한 공부라기 보다는 '딱 안정적으로 1컷만 받아가겠다' 이 마인드로 한 공부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위의 성적대로 나아갈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말이에요...

1을 유지해야한다는 강박...

지금와서 회상해보는다면 저 강박이 제 상방을 막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방을 지켜준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N년을 갈아 얻은 이 경험을 여러분들은 단기에 들고갔으면 하기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까놓고 말하자면 국어 강사각이 서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1컷을 유지해내며 다른 과목을 올리기 위해 국어 공부는 기출과 실전 모의고사 이 두 가지만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게 평가원 기출 전개년 풀이와 이감, 상상 더블 풀커리였습니다.

먼저 평가원 기출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문→문제 순서로 풀고 지문에서 애초에 읽어냈어야 하는 것을 찾아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지문 순서로 문제부터 바로 뜯어내서 지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판단하는 방식으로의 분석을 했습니다.

제 결론으로는 그 당시 메타엔 후자가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새 소셜파트는 전자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완벽하고 완전무결한 방법론은 없기 때문에 저 두 방식을 시험지 유형과 구성에 따라 자유자재로 쓰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 적용하여 시간 배분과 넘길문제는 넘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언제나 일관적으로 하되 중간에 변수가 나오면 깔끔히 인정하고 바로 버리는 연습도 병행했습니다. (불국어 한정으로 써야하는 방법이긴합니다.)

일단 이 방법론을 작년 수능에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릴까합니다.

이번 칼럼은 시험지의 운영에 대한 칼럼이 되겠습니다.

시험운영은 철저하되 유연하게

평가원의 시험지 구성부터 보고갑시다. 과거에는 화작문 이후에 중구난방으로 독서와 문학이 섞여있었지만 현재 평가원 시험지는 독서론, 독서, 문학, 선택의 순서입니다.

그 당시의 저를 그대로 데려와서 문제 풀이를 시킨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말은 이렇지만 22시절의 저라고 봐도됨 여기서 19시험지로 예시들기도 좀 그렇잖음)

아마 선택먼저 털어내고 독서론, 독서, 문학의 순서로 갔을겁니다.

먼저 선택을 맨 앞에 놓은 이유부터 생각해봅시다.

언매라고 가정한다면 한문제 정도는 헛갈리거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스무스하게 풀어나갈것이구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답일 확률이 높은 문제를 골라두되 체크해두고 바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독서론이겠네요. 이건 최대한 빠르게 털어냅니다.

이때, 문학을 먼저 풀어야 할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독서가 남았을 때의 압박감과 문학이 남았을 때의 압박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독서의 경우 시간 부족으로 지문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내용일치 문제만 발췌독으로 풀고 어휘 문제 하나 정도를 푼 다음 나머지는 찍게 됩니다.

반면 문학의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하더라도 문제부터 보며 요구하는 바를 빠르게 판단하며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독서와 문학 지문이 요구하는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서 지문은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야 문제의 정오를 판별할 수 있지만, 문학 지문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읽어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명확해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학은 연계 학습을 잘 해두었다면 그 이점을 활용해 더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비해 비문학은 연계가 직접적으로 문제풀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나요?

혹은 연계빨로 지문을 빠르게 훑고 바로 문제 풀러 갈 수 있나요?

전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설의 경우 지문부터 쪽 읽어나가는게 맞긴합니다. 하지만 소설을 읽을 때 독서처럼

‘정의예시재진술문장간의관계불여읽기도식화글의구조’ 이런거 합니까?

그읽그플이든 구조독해든 결국 독서 지문을 읽을 때에는 어느정도의 부담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학중에서 그나마 읽을게 많은 편인 소설을 보면 어떤가요?

‘장면 딸각~, 시공간 딸각~, 인물 딸각~’ 해봤자 이정도죠? 문학은 애초에 더욱 깊고 폭넓게 사고하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부담감이 적은 문학을 뒤에 배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단, 철저하게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판단이 안될 것 같은 선지 한두개 정도는 드랍해가며 나아갈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시간 끌리면 그 시험지 운영 자체가 망가질수있어요.

비문학을 여유롭게 털어내고 약간 촉박한 상황에서 문학을 시간 단축으로 완주해낸 다음 남은시간에 애매했던 선지를 검토하는게 제 방법입니다. 만점은 아니어도 1컷에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메인공부가 되어서 안됨)

평가원 시험지의 구성

독서론은 한지문, 독서는 (가)(나)형 지문1개와 단지문 2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문학에 집중해서 봅시다.

문학은 수필이 어디에 붙냐에 따라 시험지 유형이 갈립니다.

요새는 기본적으로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하나씩 출제가 되고 현대시, 고전시가 이 두 개 중 어디에 수필이 붙냐에 따라 문제 구성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야할 부분은 운문 파트에 수필이 붙지 않은 셋트이고

남들보다 아주 조금만 더 중복독해를 줄여 시간을 조금 줄일 부분은 운문 파트에 수필이 붙은 셋트가 됩니다.

산문 파트는 날림으로 읽어선 안됩니다. 최대한 연계빨로 비벼가며 (국어에 연계를 넣는거... 솔직히 이게 맞나 싶은데 평가원이 문학 연계하신다고하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음. 할거 없을 때 유튜브인스타틱톡웹툰 보지말고 열심히 문학연계 파셈, 평가원이 내는 시험을 응시하는거면 평가원을 평가하려 하지말고 그들의 기준에 몸을 맞춰야함...) 먼저 문제 선지 독해를 한 후 지문에 유리한 문제들을 기준으로 읽는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미리 읽어내고 선지를 돌아가지 않고 털어낼수있게 독해하기도 하셔야합니다.

물론 비연계인 현대소설은 기출에서 연마해온 독해로 뚫어내야겠죠..

물론 이 방법론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방법론이 능력치가 부족한 사람들도 1등급을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서 25수능 시험지를 손필기로 어떻게 독해하며 골라야할지를 가볍게 다루어보겠습니다.

현대소설 한 셋트와 고전시가 한 셋트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기> 평년시 특이 사항

「자폭명」은 ~.

vs

~ 개인 소설 ~
~ 시어 XX은 ~

상 유망할. → 해당 작품에
I 특히 드러내기
않을 수 있음.

무관 해당 작품이 그 특이
드러남.

영역

11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작품을 지칭해줌.** <보 기> **평년이면 이 <보기>는 해당 작품 이해를 위한 <보기> 활용 가능.**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꼽을 둘러싼 회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화장디깨은!

먼저 <보기>부터 독해를 시작합니다.

어? 선생님은 보기먼저론자인가요? 아니요 상황따라 다릅니다.

이 작품은 저 작품하나에 한정해서 꼭 짚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 <보기>안의 설명은 해당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문제로 갑니다.

쪽 훑어보니 ㄱㄴㄷㄹ문제가 있어요. 28번이네요..

2nd.

28.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나는~', '저는~'이 나와야함.
- ② ㉡: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하며 그 심화된 의미를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나는~' 이면 서술로 독백해야함.
- ④ ㉣: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독해하며

바로바로

선지 → 지문

문제가 → 지문
다음

~~반대로~~

다 읽기 중독독해는 전인것.

독해하며 바로바로 가봅시다.

요기서 중복독해란 제가 쓰는 말인데요.. 지문을 읽고 문제와서 선지보고 다시 지문가서 읽고 다음문제가서 선지보고 다시 지문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문만 4번이상 보는 그 독해를 말합니다. 저는 이 중복 독해가 수능 문학 시간 단축에 있어서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선지를 보며 지문을 독해하고 해야할 것을 하며 동시에 문제의 선지도 털어냅니다.

지문을 쭉 보며 모든 요소들을 미리 처리하고 그 정보를 그대로 머리에 담아와서 문제를 풀어내도 됩니다. 기억력과 인지 자원이 빠방하다면요.

저는 그냥 선지에서 요구하는거 보고 바로 읽으면서 찾는게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닥 뇌지컬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보니 그냥 눈 잠깐 굴리는게 낫더라고요.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비연계 → 기존 차원이 두꺼 (사실관계)

7.1.22 원 → 문제부터 훑어!!

원 주인공, 상황, 상황 파악

급 이식적 해법, 허망감

① 불편스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 냈기 때문에 /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 나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비밀이 탄로 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 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인체 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 봐도 /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② — 그깟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음 어때. **왜냐면 불편이 뭐지?** 그쯤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려 했다. ③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 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라** 마지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일상생활에선 드러나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해도 /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곤 했다. **있느니라** 여기고 지낼 때는 것처럼 무심스럽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의식의 끈을 건드려** 오자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버린 배꼽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허망했다.**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저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는 눈만 뜨면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여기서 완급 조절을 해 나가며 읽어내며 선지 판단을 합니다.

소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읽어내야하는 부분은 천천히 집중해서 읽고 읽어도 당장 이해가 안되거나 딱히 상황의 변화가 없는 부분, 기계적으로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부분은 빠르게 읽어냅니다.

주인공 파악하고, 시점 잡아내고, 시공간 파악하며 장면 체크하는 정도면 잠시 천천히 가도 되니까요. 일단 저 손해설에는 지문 자체의 해설보다는 풀이순서의 사고와 당위성만 적어두었습니다.

선지→지문 순서로 가며 선지 1번읽고 지문 읽어내려가며 1판단, 2번 읽고 읽어 내려가며 판단이 과정입니다.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저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는 눈만 뜨면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끝없는 사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위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갔다. 그에게는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유팔을 지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허위는 더욱더 허전해지고, 아무 곳에도 발이 닿아 있는 것 같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그는 또 거듭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마치 그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아내고, 그것으로 그 실물을 대신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세상 간에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그 난감스런 허망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의 배꼽론은 가령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한 단자(單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나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 나가며,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의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가 그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며 가능성의 상징이며 존재의 비밀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이다. 그 비밀의 문이다……

완
더 심해지네...
내면은 다스리
어떤 개인적 상황..
(회)에 의해
사회적 화제가
있을 것.

급
절망적이네..
어 왜이닝?

저 부분은 앉아서 열심히 분석하고 사고하며 읽어도 얻을것없고 시간만 빨리기에 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느덧 배꼽에 대해 당당한 일가견을 이룬 배꼽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었다.

부가하여 상황 설명 2. ④!

④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그는 물론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아직도 완전한 익숙해지질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허원은 이제 그 자신의 배꼽론에 대해선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급 변화의 상황 유지중~

그런 즈음이었다. 허원은 문득 세상 사람들이 수상척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때부터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인간 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에 대해 심상찮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배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기왕부터 있어 온 것을 여태까지 서로 모르고 지내 오다가 비로소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내보이게 할 만한 무슨 우연찮은 계기가 마련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았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런 관심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 관심의 정도도 여간이 아니었다. 한두 사람, 한두 곳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아무 흥취물 없이 터놓고 지껄이거나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을 삼기도 하였다. ⑤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완 변화 발생!
(보기)에 예고한 거인 ->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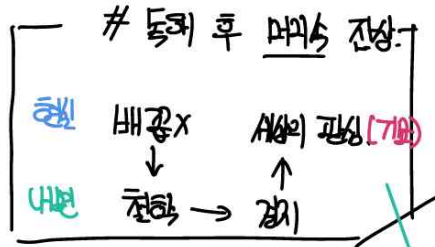
기묘한 현상이었다.

반: (이러한) -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

두려움. 이때 28번 리절되어 있어야함.

이제 29번으로 가야겠종

그런데 읽고나서 어느정도 잔상은 남겨가야합니다. 머리가 안졸긴해도 그정돈 해줘야 1 받죠..



출수형 $배경x \rightarrow Rx$ (Return의 R.) **국어**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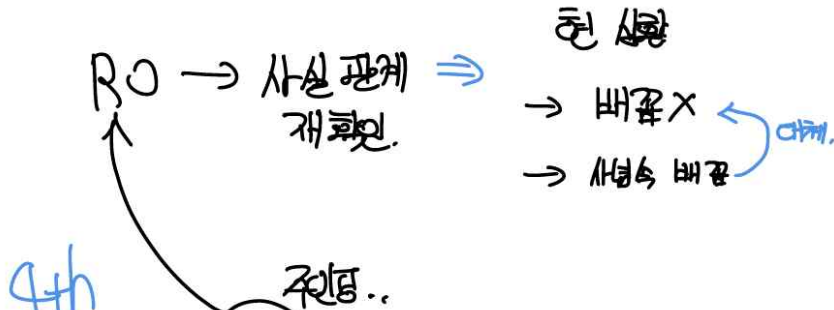
29. 비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 비밀?*
- 약간의 판단**
- ①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들여켜 본 ~~철학~~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 *배경x → 주제의*
 - ② ~~엷한~~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완화한다. *사회 상황도 ✗ 그거 내면에 정리..*
 - ③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로, 인물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다. *배경x → [의의] → [의사] → [의단] → [의행] → [의결] → [의행] → [의결] → [의행] → [의결]*
 - ④ ~~상충된~~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로,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 ⑤ ~~기성의~~ 실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을 알린다.

선지 판단하며 읽은 지문에서 얻어낸 정보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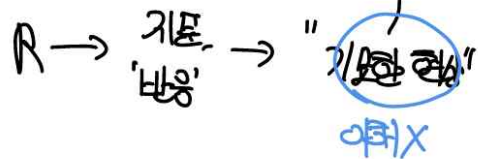
바로바로 처리할수있는 것은 굿되 잠깐 돌아가야한다면 돌아가서 보고 옵니다.

이미 지문을 읽어낸 상황에서 갔다오는건 몇초 안걸리니까 확실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확실한 텍스트를 의지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 '허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원'은 '실물'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정답.**
- ② '허원'은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 **그녀 허원.**
- ③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삼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정답.**
- ④ '허원'은 '심상찮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내면 → 관심**
- ⑤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그간 이어 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안배.**



허원이 주인공이었으니 허원에 대한 것은 빠르게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바로 풀어내는게 최적입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 기억력에 의존할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잠깐 돌아가 허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하고 와서 선지를 판단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돌아갔다와서 할 수 있는 사고만 적어두었습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1st 작품을 감상해볼. <보 기> ^{그렇다면 이 <보기>는 해당 작품 하나로 윗 <보기> 활용 가능.}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꼽을 둘러싼 회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2
3
4
5
6

Rx
Rx
Rx
Rx
Rx

- ① '의식의 끈'이 '견드려'짐으로써/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겠군.
- ②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배꼽'을 '태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군. ^{지을 개획연} 개인 → 우주.
- ④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 ⑤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배꼽이 이 걸치해서
사라졌..

어? 왜 기본부터... <보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대용 ~~자~~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다음 갑민기입니다. 보기에 시선을 주자마자 넓은 범주의 보기를 준 것 같습니다. 더 안읽고 바로 문제부터 볼 것 같습니다.

(가) 단독문제인 32번부터 털어낼 것 같아요.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순서대로
- ① 대가 표현으로 의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치를 드러낸다.
 -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③ 외분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안개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안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적실
 -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32 풀며 (가) 독해 완료!

→ 33의 ① 파악위해 (나) 독해!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연계 → 개량!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말은 권네까.
 [허리 위로 볼작지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대방 { O: 대방의 권
 X: 말과 방,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 ⊗
 곱장 할머니 앞에 가고 신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엎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히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軍丁) 싫다 하고 가량 → 권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대 한들 면할쏜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 인삽 캐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공채 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R
 함흥 북청 흥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畬田土)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지문 자체에 대한 해설은 굳이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지 판단을 하며 생각할 거리 정도만 적어두었어요.

읽어나가며 화자, 상황, 대상, 정서 정도 파악하고 할수있다면 태도까지 생각해보고 갔을 것 같습니다.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대량~~ → ~~대량~~ ~~구~~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쏘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 22} 별감 ²² 나가서는 풍헌 ⁽⁺⁾ 감관

유사 장의 채지 나면 채현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 ⁽⁻⁾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혈어 나니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 22~~ → ~~(-)~~ ~~22~~

해마다 맡아 무니 석송*인들 당할쏘냐 ~~(-)~~

- 자기 미사 「가미기」 -

어

31

32번의 1번선지를 보고 지문을 순서대로 읽으며 판단하고 찾으면 그곳 바로 다음것 보며 찾으면
그곳... 할 것 하면서 문제 푸는겁니다.

짜홀수 이슈로 섞여도 그냥 갑니다. 지문 순서대로 주는 문제는 선지를 안섞어요.

서 영역

홀수형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희를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은 아까 읽었으니 잠깐 뒀었지만 파악하면 되고 ㉡은 (나)읽으면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 봅시다. 역시나 따로 내용해설은 안써놨어요. 그게 메인이 아니니..

(나)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이희들이
앞내 ㉠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

우리도 서주(西壽)*에 일이 많아 바삐 가는 길에 가 전할동
말동 하여라

대답 : 대화체 권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래끼: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서주: 서쪽 밭.

사설시조 짧으니 빠르게 훑고

영역

흘수형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H) 화자

-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바로 선지판단

여 있고
하고
모두 무니
장 의법이라
십육 냥 (키→(-)코일
조나
- 작자 미상, 「잡민가」 -

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럼
배 가는 길이매 가 전할동
- 작자 미상, 사실시조 -
황는 바구니.

같은 것은?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전망을 제시한다.
행각에 대해 의심한다. 양개
처지를 보여 준다. 적외
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30년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44. 여! ~~한 지분~~... <보 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가)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나)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작~~ ~~가~~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 ①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시련을,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 ③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는군.
-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이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

이 문제는 이제 보기를 좀 깊게 읽으며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파악하고 선지를 판단합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2지문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와 닿는 부분이 있을테고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흡수해가시고 쓸모없어 보인다면 버리시면 됩니다.

국어라는 것이 그런 과목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